

# 옥천지역 근대의 기억과 독립운동가

박결순\*

- 
- I. 머리말
  - II. 근대 변혁운동의 진원지 ‘작은 장안’ 청산
  - III. 구한말 옥천인의 국권회복운동
  - IV. 격렬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 V. 옥천 출신의 독립유공자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옥천은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억과 흔적이 있는 지역이다.<sup>1)</sup> 1894년 조선의 농민들은 부패한 봉건왕조에 분연히 항거하여 일어났다. 최제우의 뒤를 이은 최시형은 보은과 청산에 거주하며 동학 농민군을 지휘하였고, 9월 18일 문바위골에서 재기포령을 발령함으로써 한국 근대의 여명을 밝혔다. 곧 옥천은 ‘작은 장안’으로서 한국 근대 변혁운동인 동학혁명의 진원을 이룬 곳이다.

---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민족운동은 반봉건 근대화운동·반제 해방투쟁·민족통일운동이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을 지닌 어의이다. 본고에서는 동학혁명을 포함하여 민족운동이라 하고, 반제 해방투쟁을 독립운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동학혁명 이후 옥천에서는 국권회복운동이 전개되었다. 의병은 동학 때 당한 가혹한 피해의 기억과 여파로 말미암아 그리 활발한 양상을 보이지는 못하나, 무장 항쟁의 맥락을 계승하며 후기의병기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계몽운동으로서 근대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 때 옥천에서는 이원과 청산에서 격렬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27일의 이원 시위는 도내에서 최다의 일제 측 부상자를 발생케 한 격렬한 항쟁이었다. 청산에서는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터에서 격렬한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

그런데 옥천에서는 이 같은 근대의 기억을 제대로 기억하는 기록과 기념하는 시설이 빈약하다. 동학혁명의 중요한 史實, 예컨대 청산 집회나 문바위굴 유적 등이 군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국가현충시설(독립운동시설)로는 이원면의 「기미3·1운동기념비」와 군서면의 「충민사」 2개소가 고작이다.<sup>2)</sup> 그나마 「기미3·1운동기념비」가 1958년에 건립되었으나, ‘九賢碑’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념의 시간은 1958년에 멎어져 있는 실정이다.<sup>3)</sup> 옥천 출신의 많은 독립운동가 중 김순구를 기리는 기념시설 밖에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옥천은 많은 인물을 배출한 산실로도 유명하다. 특히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근현대의 인물 중 주목할 만한 사람이 많다.<sup>4)</sup> 옥천군청 홈페이지(문화관광-옥천의 인물)에 옥천 출신 인물 20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金文起와 趙憲, 宋時烈 등 7명은 전근대 인물이고 13

---

2) 국가현충시설로서 독립운동시설은 전국 878개소, 충북 43개소가 있다(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정보서비스(<http://mfis.mpva.go.kr/hokukModelIn/>)) 참조.

3) 이원 만세시위로 포상된 유공자는 모두 13명이나, 이 비에는 1958년까지 포상된 9명만을 새겨두고 ‘九賢碑’라 기록하고 있다.

4) 옥천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옥천의 인물([http://tour.oc.go.kr/html/tour/culture/culture\\_0205](http://tour.oc.go.kr/html/tour/culture/culture_0205))에는 옥천 출신 인물 20명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金文起와 趙憲, 宋時烈 등 7명은 전근대 인물이고, 金奎興 등 5명의 독립운동가와 陸英修 등 13명이 근현대 인물이다.

명은 근현대 인물이다.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은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48명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행적을 재평가해야 할 인물도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이 수여된 인물 가운데 행적에 시비가 일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엄정하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옥천 출신 독립운동가 김규홍 학술세미나의 기초발제로서 옥천지역 근대의 기억과 독립운동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옥천의 근대사가 재조명되고, 옥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선양하고 재조명·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Ⅱ. 근대 변혁운동의 진원지 ‘작은 장안’ 청산

옥천에는 동학혁명 관련 사적지로서 최시형이 머물며 보은취회를 결정한 청산면 포전리의 김연국 집터(확인 불가), 최시형이 재기포령을 발한 한곡리 문바위골이 있고, 동학군이 일본군 및 관군과 전투를 벌인 석성과 군북면 증약 전투지가 있다. 기념물로는 문바위 동학기념공원(2013)이 조성되어 있고, 「동학혁명군재기포기념비」(1997, 천도교 중앙총부), 「갑오년동학농민혁명전적지」(2009, 옥천향토사연구회) 등이 현장에 건립되어 있다.<sup>5)</sup>

옥천은 보은과 함께 동학혁명의 진원지였다. 보은은 보은취회로 동학혁명이 시작한 곳이자, 북실전투의 패배로 실패로 끝난 곳이다. 1893년 3월 11일(음)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동학교도 수만 명이 집결한 보은집회는 동학혁명의 前史로서 그 서막을 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은취회 시기 최시형은 청산 문바위에 거주하며 동학을 지휘하였다. 당시 최시형은 무장봉기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보은과 옥천일원의 동

5) 충청북도 편,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241쪽 ;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 계획』, 51쪽.

학 세력은 관아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해져 있었다.

최시형이 손병희 등의 주선에 따라 가족을 데리고 문바위골 金聖元의 집으로 이주해 온 시기는 1893년 10월경으로 약 1년간 이곳에서 기거하며 동학을 지휘하였다. 그는 먼저 김성원의 집과 아래채 집을 확장하여 공부방을 마련하고 각 지방의 두목과 교인들을 불러 교리 강론에 열중하였다.

1894년 9월 18일, 최시형은 무장봉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 전 교도에게 봉기의 명령을 내렸다. 한 때 한곡리 일대에 수만 명의 교도가 집결하였다고 하며, 문바위에는 大都所가 설치되어 ‘작은 장안’이라고 불릴 만큼 동학도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작은 뱀골에 해묵은 울창한 버드나무 숲이 동학교도들이 타고 온 말의 고삐를 묶었던 버드나무 말뚝이 살아난 것이라는 전설의 전승은 당시의 정황을 전해준다.<sup>6)</sup> 곧 청산 문바위는 보은과 함께 동학의 또 하나의 중심이요 상징 마을로서, 근대변혁운동의 진원을 이룬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곡리 저수지 위에는 기포령에 따라 충청·경상·경기·강원 지역에서 온 동학군들이 남접군과 논산에서 합류할 때까지 머물며 군사훈련을 했다는 훈련장터가 전해진다. 또한 이 일원에는 최시형 아들 최덕기의 묘소, 딸 최윤과 관련된 자취가 남아 있다. 문바위에는 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는 당시 동학도가 새긴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동학혁명 이후 마을 주민들이 새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7)</sup>

재기포령에 따라 동학군 주력이 공주 방면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 옥천 일원에는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처절한 탄압이 가해졌다. 10월 15일 용산을 출발한 일본군 본대와 제3중대는 10월 29일 증악에 당도하여 동학농민군 110명을 살상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쏜 탄약이 1,432발이나 되었다고 한다. 현재 증악리에 전적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sup>8)</sup> 증악전투에 이어 11월 5일에는 청산 석성리에서, 동월 8일

6) 채길순, 2008, 「충청북도 중남부 지역 동학혁명사 연구」, 『충북학』 제10집, 충북학연구소, 56~57쪽.

7) 김양식, 2001, 『새야 새야 파랑새야』, 충북학연구소, 104~106쪽. 판독된 7명의 이름은 박희근·김정섭·박맹호·김영규·김재섭·박창근·신필우 등이다.

에는 문바위골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당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기할 사실은 충북 남부지역에서 이른바 민보군에 의한 동학농민군의 탄압이 옥천지역에서 가장 성했다는 점이다. 군수 출신 朴正彬 등 12명의 옥천 민보군 지도자의 명단이 확인된다. 이는 옥천지역에서 양반세력과 동학농민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12명의 민보군 지도자의 학맥이나 경제력 등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요컨대 옥천은 보은과 함께 동학혁명을 이끌어 나간 한국 근대변혁운동의 진원지이자, 여명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 Ⅲ. 구한말 옥천인의 국권회복운동

옥천지역의 의병 항전은 후기 의병에서 몇몇 활동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미미한 편이다.<sup>10)</sup> 그 까닭은 이 지역이 최시형 등이 거거한 동학북점의 지휘소라서 일제의 주목을 받았고, 바로 인접한 보은 북실에서 하루만에 2,600여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屍山血海’의 대규모 학살이 자행<sup>11)</sup>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을 지닌 의병이 위축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옥천에 유림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이 의병과 연계되는 구체적 단서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을 탄압하여 의병으로 전이되는 주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기의병이 화서학맥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실을

8) 그러나 이 비가 정확한 고증과 사실 규명을 거치지 않고 건립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김양식, 2013,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과 활용 방안」, 『동학학보』 제17집, 동학학회, 317쪽).

9) 채길순, 2008, 「앞 글」, 58쪽 ; 전순표, 2008, 「沃川靑山 東學農民戰爭과 韓末 義兵」, 『忠北郷土文化』 제20집, 충북향토문화연구소, 151쪽.

10) 전순표, 2008, 「위 글」, 127~170쪽.

11) 신영우, 1993, 「東學農民戰爭期 報恩 일대와 북실戰鬪」, 『報恩 鍾谷 東學遺蹟』,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59~69쪽.

감안하면 옥천에서 전기의병이 치성하지 못했음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905년 경부선 옥천역이 개설되며 대전으로부터 일본군수비대가 1시간이면 파견될 수 있어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점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기 이후의 의병도 그리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들며 옥천에서도 의병의 항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충청북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옥천에서 1907년 9월 17일과 10월 6일, 1908년 1월 10일, 4월 20일, 7월 13일, 8월 9일, 8월 24일 등에 의병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후기의병에서 옥천에서는 몇몇 주목되는 활동이 보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文泰洙의진의 활동이다. 그는 1905년경부터 의병으로 봉기하여 무주 덕유산을 근거로 활동하였는데, 1909년에는 영동·옥천·청산 일대까지 진출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sup>13)</sup> 문태수가 옥천 일원에서 활동한 사실은 그의 부하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sup>14)</sup>

문태수는 1909년 9월 2일(음) 밤, 康伊奉 등 11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伊院驛 인부 십 수 명의 지원을 받아 석유통 2개를 이용하여 驛舍를 불태우고 일본인의 금전을 노획하였다.<sup>15)</sup> 일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였다. 천안헌병분대 대전과건소장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sup>16)</sup>

1909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0분경, 30명의 문태수 부하 의병이 총을 쏘며 이원역을 내습하였다. 문태수는 역에서 1丁 떨어진 남방 고지에서 지휘를 하였고, 나머지 의병들이 역으로 돌입하였다. 의병들은 총으로 역사무실의 유리창을 깬데, 이에 놀란 역장과 역원은 도주하

---

12) 『暴徒史編輯資料』, 충청북도편(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540~544쪽).

1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참조.

14) 「金百元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 2. 25).

15) 「康伊奉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 2. 4).

16) 朝憲警乙 第1330號, 1909. 10. 5, 「伊院驛暴徒ニ來襲ノ件詳報」(韓國駐 筭憲兵隊長 → 警務局長)

였고, 역장 조역 등 12명은 옥실로 숨었다. 의병들은 역에 방화를 하고 역장 사택에 들이닥쳐 집기를 부숴다. 혼비백산한 일본인 15명은 옥천과 심천 방향으로 도주하거나, 부근의 산중으로 숨었다.

10월 30일 오전 0시 20분, 대전역장으로부터 이원역 급보를 받은 일본군이 오전 1시 대전역을 출발하여 이원역으로 출동하였다. 출동 병력은 헌병 오장을 비롯하여 6명, 대전수비대 장교 이하 20명이었다. 당시 의병이 지닌 무기는 종류가 불명한 10정의 총기였고, 복장은 보통의 韓裝이었으나, 黑衣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일본군이 탄 열차가 들어오자 의병들은 영동군 양산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당시 일제가 조사한 피해액은 약 3천 엔이며, 의류와 역장의 개인 돈 80엔 등도 탈취당하였다. 이 활동은 『梅泉野錄』에도 특기할 만큼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sup>17)</sup>

한편 군서면 상지리 地境村(일명 지경소)에서는 1908년 4월 22일 50여 명의 의병이 보은수비대 소속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20명이 전사하였다.<sup>18)</sup> 이곳은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내를 건너면 충청남도와 접도한 곳이라 지경촌이란 이름이 붙은 마을로, 산이 마을을 요새처럼 두르고 있어 의병이 활동하기 좋은 지형이다.<sup>19)</sup>

옥천에서 활동한 의진은 문태서 의진을 제외하고는 소속이나 규모 등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보은의 속리산의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해산 직후의 상황을 보면 속리산의병이 옥천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 8월 28일 오후 6시, 해산군인 13, 4명이 포함된 60여 명의 의병이 보은을 습격하여 거류 일본인 2명을 처단하고 청산으로 향하였다. 이에 놀란 보은 거류 일본인들과 분파소원이 옥천으로 피신해 왔다. 의병은 점차 1백여 명으로 늘어났다.<sup>20)</sup>

17) 황현, 『매천야록』 권6(2005, 『역주 매천야록 하』, 문학과 지성사, 603쪽).

18) 「通報韓國駐劄軍參謀長」(1981,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207쪽).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670~671쪽.

2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陣中日誌』 I, 159쪽.

이날 옥천에서도 총성이 들리고 의병이 옥천정차장을 습격한다는 풍문이 나돌자, 일본인들이 옥천을 탈출하기 위해 정차장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일본군 여단장은 제3대대 9중대장 小柳 대위에게 병력의 2/3를 주어 옥천으로 급파하였다. 8월 30일 오후 3시에 대전을 출발한 일본군이 5시에 옥천에 도착하였다. 일본군은 보은 서남방 3리 지점 산중에 4백여 명의 의병이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차장 경계에 돌입하고, 일부 병력은 옥천 읍내를 정찰하였다.<sup>21)</sup>

9월 4일, 대전정차장 역장으로부터 약 1백 명의 의병이 只今川을 건너 옥천정차장을 습격한다는 통보를 받은 제2대대는 여단장의 허가를 받아 상주로 파견할 예정이던 松野 중대를 곧 옥천으로 출발시켰다.<sup>22)</sup> 옥천역에 도착한 송야 중대는 이곳으로 피난해 온 군수와 일본 거류민으로부터, 어제 옥천 동북방 3리 渡場에서 의병 약 3백 명이 3척의 배로 옥천으로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옥천 일원의 정찰에 나섰다. 그러나 별 이상이 없자, 이튿날 하사 이하 7명을 정차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전으로 귀환시켰다.<sup>23)</sup> 그러나 이 밖의 옥천지역 의병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병항쟁과 함께 근대교육운동도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옥천에서 근대교육을 연 것은 1905년 개교한 進明學校였다. 설립주체는 전 관찰사와 군수 등 관직을 역임한 유지들이었다. 교과목은 국한문·독서·작문·습자·일어·산술·지지·역사·법률·체조 등이었다.<sup>24)</sup> 진명학교는 1908년 14세의 여학생 1명을 졸업시켰는데, 이 학생이 졸업식에서 연설한 것이 특별 뉴스가 되기도 하였다.<sup>25)</sup>

2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앞 책』, 162~163쪽.

22) 松野 중대는 2시 45분 대전역을 출발하여 4시 10분 옥천역에 도착하였다.

2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앞 책』, 178-183쪽.

24) 進明學校가 日語를 교과목으로 했다는 점에서 민족교육기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어교육이 문명화란 미명하에 일본어 만능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민족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김형목, 2013, 「한말 충청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제68집, 호서사학회, 19~20쪽).

25)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일 잡보 「處子演說」.

이 해에 彰明學校도 문을 열었다. 이 또한 김규홍 등 전직 관료와 유지들이 설립 주체였다. 교육과정은 보통과와 전문과로 나뉘었는데, 전문과는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학교에도 일본인 堤廣吉이 일본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민족교육이나 국권회복운동으로서의 성격 여부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이밖에도 옥천에는 광동학교(인명학교로 개칭), 영명학교, 인명학교, 신명의숙 등이 근대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특기할 것은 옥천에 노동학교(야학)의 설립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군수 신현구는 관내에 7개의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노동자의 문맹퇴치에 노력하였다.<sup>26)</sup> 뿐만 아니라, 노동동명학교와 그 지교가 만들어져 크게 호응을 얻었는데,<sup>27)</sup> 이는 향후 옥천지역의 노동운동과 함께 검토해야 할 주제이다.

옥천의 한말 국권회복운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채보상운동이다. 옥천은 충북에서 국채보상운동에 가장 먼저 호응하여 1907년 3월 3일 「國債報償斷煙義務會」를 조직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발기인은 李圭淵과 鄭惠溶 등 옥천 유지 21명이 망라되었는데, 그들은 거액의 국채를 연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붙어날 것이고, 그러면 ‘國家를 難保하고 國家를 難保하면 同胞가 장차 어느 곳에 생명을 붙이겠는가?’라며 지역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sup>28)</sup> 옥천인의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옥천 장날 장터에서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國債報償斷煙義務會의 목적을 홍보한 유명헌의 연설 내용에 잘 나타난다. 그는 우리나라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부강 문명한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은 애국정신의 결핍이라고 반성하며, 동포들이 忠愛精神과 단결력을 발휘하여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할 것을 역설하였다.<sup>29)</sup>

26) 『皇城新聞』 1909년 2월 13일 「沃倅勸學」;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27일 「申氏熱誠」.

27) 『皇城新聞』 1909년 5월 6일 「沃郡東明」. 옥천의 야학 설립 현황에 대해서는 김형목, 2002,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집, 45~46쪽의 표 참조.

28) 『皇城新聞』 1907년 3월 9일;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8일 「忠淸北道沃川郡國債報償斷煙義務會趣旨書」.

29)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30일~6월 1일 「沃川郡國債報償斷煙義務會

## IV. 격렬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충북에서 최초의 3·1운동이 전개된 것은 3월 19일의 괴산장터 시위였다. 이후 충북에서는 4월 19일의 제천 송학시위까지 만 1개월 동안 도내 전역에서 최소 38회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sup>30)</sup>

옥천에서는 3월 16일 읍내 下桂里 柳錫九의 집 담 벽에 ‘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종이가 붙어 있었고, 공립보통학교 3학년 교실 앞 바위에 ‘독립만세’라고 쓴 혈서가 나붙으며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의 전조가 되었다.<sup>31)</sup>

충북의 만세시위에서 옥천은 격렬함에서 돋보이는 지역이다. 3·1운동과 관련한 고전적 통계자료인 『韓日關係史料集』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sup>32)</sup> 이 자료에는 충북의 만세시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피상·피수인이 발생한 곳으로 3월 27일의 이원시위를 들고 있다. 즉, 충북에서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무차별 탄압으로 74명이 사망하고 163명이 부상하였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0명의 사망자와 92명의 부상자가 옥천 이원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韓日關係史料集』에 기록된 충북지역 3·1운동 상황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충북지역 3·1운동 통계표<sup>33)</sup>

目的을 以驪口야 市上에 演說口.

30) 박결순, 2010,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제15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31쪽.

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 제3권, 87쪽. 여기에는 『朝鮮獨立騷擾事件』(34쪽)을 인용하여 3월 19일 저녁 많은 군중이 읍내를 누비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일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2) 박결순, 1999,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역사서 편찬」, 『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80周年記念論文集(下)』, 국가보훈처.

33) 국사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731~732쪽. 이 자료를 토대로 3·1운동 통계를 재정리한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 통계도 이와 똑같다(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34~36쪽).

郡名	月日	會集數	死亡數	被傷數	被囚數	主謀團體
槐山	3. 20	6,000				天道教
淸州	3. 23	5,000			20	
沃川	3. 27	4,700	40	92	48	
永同	3. 30	1,000				
鎭川	4. 2	900				
堤川		2,900	16	25	41	
陰城		2,000	6	10		
忠州		3,250	12	36	48	
忠淸北道		25,750	74	163	157	

그런데 이 기록은 해외에서 傳聞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제가 매일의 만세시위 상황을 보고한 「日次報告」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옥천의 만세시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옥천 만세시위 상황표<sup>34)</sup>

월일	지역	군중수	출동병력	발포개소	사상자
3. 27	이원	700		1	2(10)
4. 3	청산	1,000		1	5

※ 괄호 내 숫자 : 일제 측 사상자

3월 27일 옥천 이원장터에는 6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이원경찰주재소로 쇄도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주재소 안으로 돌입하여 유치장과 벽을 파괴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이날 만세시위의 주도자는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고 귀향한 許相球·陸昌文·陸昌柱였다. 이들은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귀향하여, 15일경부터 고향 水墨里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이

34) 이 표는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I卷에 수록된 일제의 정보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들은 이원장날인 3월 27일 오후 1시경, 장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행진하였는데, 일제가 출동하여 허상기·육창주·김용이 등을 헌병주재소로 연행해 갔다. 이에 분노한 군중들은 주재소로 쇄도하여 투석전을 전개하며 연행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이 때 옥천헌병분대장 등이 응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10명의 헌병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시위 군중의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에 일제는 다시 대전으로부터 장교 이하 21명의 수비대를 파견, 사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sup>35)</sup> 이원장터 시위는 허씨와 육씨 일가의 참여와 활약이 특기할 만하다.

조선헌병대사령부는 이원 시위를 충북 ‘폭행 소요의 효시’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신문에 곧 보도됨으로써, 도민 전체에 ‘두드러지게 소요 기분을 환기’시켰으며, 이로부터 각 처의 장터에서 자주 시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였다.<sup>36)</sup> 일제가 이원시위를 주목한 것은 헌병측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때문으로 여겨진다.<sup>37)</sup> 현재 이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서훈된 독립유공자는 13명으로 옥천 3·1운동 유공자 24명 중 절반을 상회한다.<sup>38)</sup>

청산에서도 잇달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26일 읍내에서 수백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4월 2일 밤, 3백여 명이 장터에서 전개한 시위는 곧 해산되었으나, 이튿날에는 1,000여 명의 군중이 청산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제가 무차별 발포를 감행하여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sup>39)</sup> 만세시

35) 高第九一四六號, 1919. 3. 28,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二十九報)」(金正明編, 1967, 『위 책』, 431~433쪽). 일제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며 15명이 검거되었다.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533쪽.

37) 당시 충북에서 발생한 일제측 사상자는 11명인데, 이원에서만 10명이 부상한 것이었다.

38) 이원시위 참여 공적으로 서훈된 유공자는 공재익·김용이·박만하·배용석·육창주·이금봉·이면호·이호영·호간·허상기·허상기·허상희·허찬 등 13명이다.

39)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 1967, 『위 책』, 505쪽); 朝鮮憲兵隊司令官 發信 電報, 1919. 4. 6(金正明編, 1967, 『위 책』, 515쪽).

위가 진행되는 동안, 청산에 거주하던 일본인 5, 6호는 온 가족이 주재소 안으로 피신해 있을 정도로 시위는 격렬히 전개되었다. 시위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주재소 마당에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였다.<sup>40)</sup>

그런데 청산 만세시위 참여자들 가운데 판결문이 남아 있는 사람은 高漢周 1인 뿐이다.<sup>41)</sup> 다행히 청산면사무소에 『犯罪人名簿』가 보존되어 있어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태형 처분을 당한 지역민 12명이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박재호·김한주·안병하·김홍·김지수 등이 포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호적·제적부 등 기록과의 불일치, 기준 미달(태형 60) 사유로 6명이 미포상 상태이다.

한편 4월 8일 밤에는 군서면 오동 현병주재소 관내에서 약 50여 명의 주민이 횃불을 피우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나 현병이 출동하자 곧 해산하였다.<sup>42)</sup> 그런데 이 시위의 주도자인 金舜九는 특기할 만하다. 그는 3월 23일 청주 강내에서 趙東植이 ‘烽火告變’의 전례를 참작하여 주도한 봉화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sup>43)</sup> 3월 30일의 미원장터 시위에도 참가한 바 있다. 곧 그는 인근지역의 만세운동을 참여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 V. 옥천 출신의 독립유공자

2016년 10월 현재, 옥천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48명이다. 국가보훈처

4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앞 책』, 90쪽.

41) 「高漢周判決文」(대정 8년 형제786호, 공주지방법원, 1919. 12. 15).

42) 高第一—〇—四號, 1919. 4. 1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四報)」(金正明編, 1967, 『앞 책』, 593~594쪽).

43) 박걸순, 2013, 「3·1봉화만세운동과 趙東植」, 『중원문화연구』 제20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30쪽.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2013년까지 포상된 41명만이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7명이 추가 포상되었기 때문에 총 48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44)</sup>

<표 3>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일람표

연번	성명	운동계열	생존기간	훈격(연도)
1	고한주(高漢周)	3·1운동	1895. 4. 21~1927. 9. 9	애족장(93)
2	공재익(孔在翊)	3·1운동	1878.12. 24~1949. 4. 23	애족장(90)
3	곽준희(郭俊熙)	의병	1870~1940. 8. 14	애국장(96)
4	곽중규(郭重奎)	임시정부	1891. 11. 16~1950. 9. 10	독립장(92)
5	곽중선(郭重善)	중국방면	1907~1935. 9. 20	애족장(92)
6	권춘경(權春京)	의병	1885~미상	애족장(2015)
7	김규홍(金奎興)	중국방면	1872. 6. 13~1936. 8. 16	애국장(98)
8	김순구(金舜九)	3·1운동	1867. 10. 16~1919. 6. 28	애국장(91)
9	김용이(金龍伊)	3·1운동	1889. 12. 11~1958. 3. 10	애국장(90)
10	김운용(金云用)	국내항일	1896. 9. 17~미상	애족장(2015)
11	김응선(金應善)	의병, 창의단	1883~미상	애국장(91)
12	김인수(金仁洙)	3·1운동	1887. 1. 30~1919. 4. 4	애국장(91)
13	김지수(金芝洙)	3·1운동	1880. 7. 11~1961. 8. 25	대통령표창(93)
14	김철수(金轍洙)	3·1운동	1878. 9. 9~1919. 4. 3	애국장(91)
15	김한주(金漢洲)	3·1운동	1876. 9. 11~1962. 5. 30	애족장(93)
16	김현구(金鉉九)	미주방면	1889~1967	애국장(95)
17	김홍(金洪)	3·1운동	(1879)~미상	대통령표창(2010)
18	김홍기(金鴻機)	미주방면	1888. 11. 26~1946. 5. 30	건국포장(2011)
19	류재영(柳在英)	국내항일	1889. 7. 23~1945. 1. 21	건국포장(2008)
20	박만하(朴萬夏)	3·1운동	1879. 4. 3~1951. 8. 1	대통령표창(2010)
21	박재호(朴在浩)	3·1운동	1876. 1. 1~1947. 9. 3	애족장(90)
22	박종규(朴宗奎)	의병	1871~미상	애족장(2015)

4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2014년 이후 포상된 유공자는 권춘경·김운용·박종규·박종섭·이수찬·정명옥·지팔문 등 7명이다.

23	박종섭(朴宗燮)	의열투쟁	1873~미상	애족장(2014)
24	배용석(裴用石)	3·1운동	1899. 8. 17~1926. 10. 9	애족장(90)
25	송암우(宋岩于)	국내항일	1897. 2. 11~1959. 7. 20	애족장(2008)
26	안병하(安秉夏)	3·1운동	1891. 11. 5~1960. 7. 15	애족장(93)
27	양한위(梁漢緯)	군자금모집	1883. 4. 2~1949. 4. 30	애국장(90)
28	오형덕(吳亨德)	의병	미상~미상	애족장(2013)
29	유재혁(柳在赫)	국내항일	1911. 2. 9~2008. 5. 27	애족장(2007)
30	육동백(陸東百)	학생운동	1908. 7. 20~미상	애족장(90)
31	육창주(陸昌柱)	3·1운동	1886. 12. 28~1950. 5. 28	애국장(2005)
32	이금봉(李金奉)	3·1운동	1896. 7. 3~1950. 7. 20	애족장(90)
33	이면호(李冕鎬)	3·1운동	1878. 3. 10~1920. 11. 2	애국장(91)
34	이수천(李壽千)	3·1운동	1899. 6. 3~1965. 2. 22	대통령표창(2014)
35	이인식(李寅植)	군자금모집	미상~미상	애족장(90)
36	이호영(李瑚寧)	3·1운동	1899. 10. 9~1968. 10. 7	애족장(2006)
37	임선재(任善宰)	국내항일	1902. 9. 23~1973. 6. 10	애족장(90)
38	진좌환(全佐漢)	창의단	미상~미상	독립장(63)
39	정명옥(鄭明玉)	국내항일	1898~미상	애족장(2015)
40	정종석(鄭鍾奭)	학생운동	1905. 9. 21~1973. 1. 20	애족장(90)
41	정화순(鄭化順)	3·1운동	1871~1931. 4. 12	대통령표창(2010)
42	조동호(趙東祜)	임정 중국	1892. 8. 4~1954. 9. 11	독립장(2005)
43	지팔문(池八文)	의열투쟁	1884~미상	애족장(2015)
44	허간(許諫)	3·1운동	1859. 2. 6~1942. 11. 29	애족장(90)
45	허상구(許相球)	3·1운동	1898. 10. 3~1958. 7. 15	애족장(90)
46	허상기(許相基)	3·1운동	1871. 6. 15~1946. 7. 7	애국장(90)
47	허상회(許相淮)	3·1운동	1881. 9. 9~1962. 11. 18	애족장(90)
48	허찬(許贊)	3·1운동	1886. 7. 7~1945. 11. 18	애족장(92)

이들을 운동계열별로 분류하면 3·1운동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내항일 6명, 의병 4명이고, 군자금모집·미주방면·의열투쟁·임시정부·창의단·학생운동·중국방면이 각각 2명이다. 이는 국

가보훈처의 운동계열 분류에 따른 것이나,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는 못하다. 예컨대 송암우·김운용·정명옥은 이른바 倡義團의 의열투쟁 계획에 참여한 인물인데, 이들을 모두 국내항일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창의단은 5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sup>45)</sup> 현행 국가보훈처의 운동계열 분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분류

운동 계열	3·1 운동	국내 항일	의병	군자금 모집	미주 방면	의열 투쟁	임시 정부	창의단	학생 운동	중국 방면	계
인원	24	6	4	2	2	2	2	2	2	2	48

3·1운동 참여자는 이원시위 참여자가 13명(공재익·김용이·박만하·배용석·육창주·이금봉·이면우·이호영·허간·허상구·허상기·허상회·허찬)이고, 청산시위 참여자가 8명(고한주·김인수·김지수·김철수·김한주·김홍·박재호·안병하)으로 모두 21명이나 된다. 또한 군서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순구가 있으며, 공주 정안 만세시위에 참가한 정화순과 청주만세시위에 참가한 이수천은 옥천 출신으로서 타지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례이다.<sup>46)</sup>

국내항일 참가자로는 옥천에서 한약상을 운영하며 곤궁한 농민을 지원해 주고, 일제의 정책을 반대했던 류재영, 1920년경 군정서에서 보내온 선전 문서를 옥천군청 등사관으로 등사했던 임선재, 1939년 옥천군수 최병협의 친일 투고 기사를 꾸짖는 편지를 보낸 유재혁이 있으며, 송암우·김운용·정명옥은 倡義團의 의열투쟁 계획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이들과 함께 창의단의 의열투쟁 계획에 참여한 전좌한도 있는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45) 창의단으로 포상된 인물은 전좌한(1963, 독립장)과 김응선(1991, 애국장)인데, 이들은 이른 시기에 포상된 경우이다. 그런데 근래에 포상된 인물은 국내항일로 분류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

46) 이하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참조.

의병 참여자는 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 이는 옥천의 의병이 활발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곽준희는 후기의병기 장운식 의진에 참여하여 옥천과 금산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였고, 김응선은 후기의병시 문태수 의진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창의단 의열투쟁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권춘경은 1907년 문의에서 홍사과 의진에 참여하여 충청·경상·전라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박종규는 1908년 석주사 의진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인 인물이다.

임시정부 참여자로는 곽중규가 있는데, 그는 고향 이원의 3·1운동에 참가한 후 1921년 상해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 의정원 비서장, 인성학교 교사, 상해교민단장, 충청도의원 등 중책을 역임하였다. 1929년에는 사진관을 운영하며 독립운동가의 연락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특히 윤봉길을 사진관에 기거시키고 동생 중선으로 하여금 윤봉길을 지원케 하는 등 홍구공원 의거를 지원하였다. 조동호는 1914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한청년당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충청도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였고, 『한일관계사료집』과 『독립신문』 발간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중호조사, 한국노병회 등에 참여하다가 1923년 귀국,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동아일보』 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모스크바에 파견되는 등 진보적 지식인으로 활동하였다.

중국방면 활동 참여자로는 곽중선과 김규홍이 있다. 곽중선은 형 중규의 부름을 받고 상해로 건너가 병인의용대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1927년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가 퇴교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거를 지원하였으며, 옥고 중인 형의 가족을 돌보던 중 상해에서 밀정에 게 저격당해 순국하였다. 김규홍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미주방면 활동가로서 김현구는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09년 도미한 그는 박용만이 세운 헤스팅스 소년병학교를 졸업하였고, 1919년에는 『新韓民報』의 주필이 되었으며, 대조선독립단에 참여하였다. 1921년 박용만이 북경에서 군사통일회를 개최하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27년

에는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이승만과 반대 입장에 서서 그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1932년에는 윤봉길의거를 후원하고 대한인국민회를 복설하였다. 또한 재민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해방 직전에는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흥기는 헤스팅스 소년병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하였고, 동지회 시카고지회 서기, 한국외교위원회 내무위원부 위원 등을 지냈다.

군자금모금 활동 참가자로는 3·1운동 직후 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던 양한위와 이인식이 있다. 의열투쟁 참가자로는 나인영, 오기호 등 3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을사오적 처단을 기도하였던 박종섭과 지팔문이 있다.

학생운동 참가자로는 1926년 수원농림 재학 중 항일 학생결사인 健兒團에 참가하였던 육동백과, 1926년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 醒進會에 참여하였다가 광주학생독립운동사건에 연루된 정종석이 있다.

옥천 출신의 독립유공자를 훈격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훈격별 분류

훈격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계
인원(%)	3(6.25)	12(25)	26(54.2)	2(4.2)	5(10.4)	48(100)

가장 높은 등급은 독립장으로 광중규·전좌한·조동호가 수여받았다. 애국장은 김규홍 등 12명이, 애족장은 고한주 등 26명이 받았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등급이다. 건국포장은 김흥기 등 2명, 대통령표창은 김지수 등 5명이다.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수여자는 없으나, 애국장과 애족장이 많고,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수여자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sup>47)</sup>

47) 2016년 10월 현재 전국의 독립유공자는 14,564명으로 이 중 독립장 823명(5.65%), 애국장 4,230명(29%), 애족장 5,473명(37.6%), 건국포장 1,176명(8.1%), 대통령표창 2,739명(18.8%)이다.

옥천 출신 독립유공자 가운데 독립운동의 방략과 활동이 남다른 인물이 있다. 그 중 대표적 인물이 김규홍이다. 김규홍은 여러 면에서 주목되는 독립운동가이다. 먼저 그는 고종으로부터 무관학교 설립 자금을 받고 망명하였다고 알려졌다. 이는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sup>48)</sup> 이는 김규홍의 활동을 밝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밀지를 통해 의병 등 독립운동에 영향<sup>49)</sup>을 미친 고종의 역사적 평가와도 연관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규홍은 신해혁명 이전 단계부터 중국 혁명 세력들과 한·중 연대를 도모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sup>50)</sup> 그가 이방인으로서 중국 혁명정부로부터 參議와 顧問員에 임명된 것은 독립운동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19년 11월경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와 중국의 혁명지사가 연대하여 발기한 興國實業銀行(후에 興華實業銀行으로 개칭)의 설립 주체가 박용만이 아니라 김규홍이라는 주장도 주목된다.<sup>51)</sup> 또한 김규홍의 경제적 기반을 주목하고, 이를 둔전병적 독립군 양성 계획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sup>52)</sup> 그는 망국 직후부터 신문사를 창립하여 한·중 연대를 도모하였고, 만주와 몽골을 무대로 하여 둔전병제를 실행하여 궁극적으로는 한·중 민병이 연합하여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뤄내고 또한 중국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sup>53)</sup>

그러나 김규홍에 대한 연구의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그의 독립운동의 배경으로서 옥천의 토지소유 현황 등 경제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48) 『金鉉九 자서전』 및 『支那朝鮮人陰謀事件ニ關スル件』 제230호, 1916년 9월 22일. 김규홍과 김현구는 이종사촌간이다.

49) 오영섭, 2007, 『고종황제와 한말 의병』, 선인 참조.

50) 배경한, 2011, 「신해혁명과 한국」, 『歷史學報』 제212집, 역사학회, 279~304쪽.

51) 손영홍, 2015, 「金復의 둔전병적 독립운동과 興華實業銀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47~175쪽.

52) 金昊珍, 2015, 「凡齋 金奎興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56~185쪽.

53) 金復이 대한인국민회 미주총회에 보낸 편지(1911. 3. 7).

밝혀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옥천지역의 『光武量案』이 남아 있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규명되지 않고는 그의 독립운동의 배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가 향리에서 進明學校, 彰明學校의 설립과 운영 등을 통해 전개한 계몽활동도 그의 경제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고종과 관련을 맺을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가 고종으로 받았다는 밀명(밀지)과, 고종의 비자금 지원과 무관학교 설립 계획 등의 실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 혁명에 참가하게 된 배경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교류한 중국 인사들의 면면도 더 밝혀져야 하며, 혁명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의 실상과 역할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가 馮玉祥의 군사고문을 하였다거나, 張學良 군벌 휘하로 들어가 재만한인입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 여부와 의미 등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후의 사실에서도 추론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그와 임시정부나 상해 한인사회와의 관계, 안창호와의 독립운동 방법론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나아가 박용만, 이회영, 신채호 등 북경세력과의 관계도 더 살펴보고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박용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시 한인사회나 일제는 그를 박용만의 동지 또는 심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54)</sup> 박용만의 말년 행적과 암살이 그의 독립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한 그가 주도한 흥국실업은행 설립과 독립운동과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그의 둔전병제 구상이 백서농장과 한흥동 건설이나 이상촌 건설 등 독립운동 시기에 추진되었던 둔전병제적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54) 高警第1107號, 「朴容萬ノ不逞鮮人團統一運動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3. 4. 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三』.

이 같은 김규홍에 대한 연구사적 공백을 메우고 논의를 정리하는 일 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1920년대 이후 그의 활동과 행적에 대해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한 자료의 진위를 석명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獨立新聞』에 보도된 金復의 행적에 대한 논란<sup>55)</sup>을 근거로 그에 대한 행적 시비는 동명이인을 구별하지 못한 오류라고 정리된 바 있다.<sup>56)</sup> 이 견해는 김복을 잘못 파악한 일제측 정보 보고 문서를 제시하며, 동명이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의 정보문서가 지닐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3·1운동기 조선군사령관을 지낸 우츠노미야타로[宇都宮太郎]가 김복의 행적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츠노미야가 사이또오 총독에게 김복과 서신 내왕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편지(1920. 2. 9)가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김복이 김규홍과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는 추론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 일본에서 간행된 『宇都宮太郎日記』에는 1919년 이후 김복과 일제와의 구체적인 연계 기록이 수차 등장하고 있다. 일제는 일본인과 친일인사를 내세워 김복을 회유하여 전향시키려 공작하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김복은 김규홍과 동일인이다.<sup>57)</sup>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宇都宮太郎日記』의 김규홍 관련 기사는 김규홍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일 이 기록이 사실이

55) 『獨立新聞』 1922년 10월 30일 「金復氏의 曖昧」. 이 기사는 김복이 ‘敵總督府假鬼輩의 魁首가 되어 中國 各 地方에 있는 同類輩을 指揮한다’는 地方 通信에 의해 『獨立新聞』이 게재하였더니 김복을 伯父라 부르는 金自重이 자기 백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또 다른 인사도 凡齋는 그럴 이가 아니라는 변호가 있었다고 하며, 이는 동명이인이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고의로 지어낸 말을 통신원이 탐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보도하였다.

56) 金昊珍, 2015, 「앞 글」, 181쪽.

57)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編, 2007,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將 宇都宮太郎日記(全3卷)』, 岩波書店. 여기에는 김복의 본명을 김규홍이라 밝히고 출신을 옥천이라 명시하여 동일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라면 독립운동가로서 김규홍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독립유공자 가운데에는 일단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포상이 되었으나, 이후 자료의 정보화가 진행되며 친일 행적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다. 全佐漢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전좌한은 金應先, 桂義山과 함께 조선총독부 청사 두 곳과 조선은행, 조선신궁, 종로경찰서 등 5개 기관의 폭파를 계획한 이른바 창의단사건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일제에 피체되어 1920년대 두 차례 옥고를 치른 공적으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다.

전좌한은 옥전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자랑비<sup>58)</sup>에 이름이 새겨진 인물이고, 지역에서 일대기가 출간되기도 하였다.<sup>59)</sup> 그러나 그에 대해 행적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해방 후 전좌한의 행적에 시비를 제기한 것은 1984년 『동아일보』였다.<sup>60)</sup> 그 발단은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宋相燾의 『騎驢隨筆』에 수록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sup>61)</sup> 이 자료에 따르면 전좌한과 계의산은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의 경보부였던 카와사키[河崎]와 다나베[田邊]의 밀정이었다는 것이다. 전좌한이 1차 거의 때 동지들과 같이 잡히지 않았던 것도 폭파사건을 임의로 꾸민 뒤 일제에 밀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가 밀정임에도 후일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폭탄 테러에 관련됐을 뿐 아니라, 사육을 위해 동족을 밀고한 행위를 일본인 판사 조차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2)</sup>

58) 죽향 1리 마을 입구에는 2006년 주민 일동 명의로 세운 「마을자랑비」가 서 있다. 여기에 전좌한에 대해 “어려서부터 항일투쟁에 헌신하여 독립선언문을 인쇄·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선전하는 혈서를 붙이는 등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새겨두었다.

59) 전장한, 1994, 『행동하는 역사의 증인 -독립투사 전좌한 의사 일대기-』, 문경출판사.

60) 『동아일보』 1984년 11월 28일자 「독립유공자 밀정혐의 자료」.

6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71년 발행된 한국사료총서 『騎驢隨筆』 ‘金一山’편에 전좌한의 행적이 실려 있다. 김일산은 김응선의 이명이다.

62) 국사편찬위원회, 1985, 『騎驢隨筆』, 349~352쪽; 『동아일보』 1927년 8월 12일 「밀정의 활동과 법관의 의심」.

전좌한의 밀정 논란은 사실 그가 체포되어 심리를 받던 당시부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sup>63)</sup> 당시 공판정은 ‘경찰의 밀정’이 사건에 가담한 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매 공판 때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좌한의 재판과정은 당시 신문에 사진과 함께 연일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결국 그는 판사와의 심리과정에서 자신이 카와사키에게 밀고했음을 시인하였다.<sup>64)</sup> 카와사키는 경기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던 고위 경찰이었다.

전좌한은 1차 거사 직전 자신이 밀고했음을 물론, 형사대에 김응선의 존재를 지목해 주었으며, 만주로 갔던 것도 카와사키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조차 전좌한의 ‘연극에 속아’ 체포된 다른 피고 가족들의 분노와, ‘개인의 부당한 보수를 바라 사건을 날조한 可憎可惡니 엄벌이 필요’하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인 검사의 논고 내용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sup>65)</sup>

그러나 1984년 자신에 대한 밀정 논란이 크게 사회 문제화 될 당시 생존해 있던 그는, 송상도와 자신은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騎驢隨筆』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다. 그는 1986년 사망하여 파주의 낙원공원묘지에 묻혔는데, 가족조차 찾지 않아 무연고 묘지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sup>66)</sup> 한국독립운동사는 물론, 「마을자랑비」 등 옥천의 각종 향토 자료에서도 엄정한 재평가가 이뤄져 기록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63) 『동아일보』 1927년 6월 21일 「相關된 兩大事件 二十日에 豫審結定」.

64) 『동아일보』 1927년 8월 23일 「전좌한의 밀고사실 시인」.

65) 『매일신보』 1927년 8월 27일 「부당한 보수바라 사건을 날조」.

66)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행적 시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묘 앞에는 1988년 ‘광복회원과 강호제현’에 세운 「애국지사 사운옥천 전좌한지묘」 비가 서 있는데, 여기에는 재혼한 부인(김귀섭)과 從子, 養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 무연고 묘로 분류하였으나, 독립운동가라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VI. 맺음말

옥천은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기억과 흔적이 있으며, 많은 근현대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다. 본고는 김규홍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의 기초발표문으로서, 한국근대사에서 옥천의 기억과 독립운동을 논의한 것이다. 향후 옥천 근대의 역사와 인물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근대 역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기념하는 단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동학과 3·1운동 분야가 더욱 그러하다. 현재 전국에 23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인근 보은에도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기념사업회와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활동하고 있다. 보은은 동학학술대회 개최와 정례적인 동학제를 시행하는 등 연구와 기념사업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최시형 등 교단 지휘부가 거주했던 ‘작은 장안’으로서 재기포령을 내린 옥천도 충분히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할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또한 충북의 대표적 3·1운동인 이원과 청산시위를 기념하는 단체도 필요하다. 당장 별도의 단체 조직이 곤란하다면, 먼저 기존의 향토사연구 조직이 주체가 되어,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별개의 단체 조직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둘째, 근대 역사 소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학이 치성했던 지역은 모두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테마 관광 코스로 제시하고 있다. 군청 홈페이지 등에 옥천지역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문바위동학기념공원 등의 시설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대 역사의 기념시설이 필요하다. 청산면에 동학혁명군재기포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나, 이는 천도교중앙총부가 최시형의 ‘순도 100년’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동학의 기념사업에 특정 종교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종교적 색채를 덧씌우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학의 역사성과 민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의 주체를 신중

히 해야 한다. 증약전투기념비처럼 정확한 학술적 고증 없이 비석을 세워 논란이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원 기미3·1운동기념비처럼 기억과 기념의 시점이 오래되어 현재적 평가와 의미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기념비는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여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 청산처럼 연속으로 격렬하게 만세시위가 전개된 장터 현장에도 기념비를 세워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옥천은 근대 인물에 대한 기념 시설이 태부족이다. 물론 옥영수나 정지용도 중요 인물로서 기념시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강렬한 역사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은 독립운동가 만한 자산은 없을 것이다.

넷째, 근대의 인물 발굴이 필요하다. 필자는 2013년 국가기록원 판결문을 분석하여 향후 포상 가능한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때 옥천 출신 8명의 재판 기록을 발굴하여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는데, 그 후 6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다.<sup>67)</sup> 아직 포상되지 못한 분의 자료 확인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청산시위 참여자 가운데 청산면사무소의 『犯罪人名簿』에 기재된 인물 가운데 기록 불일치와 기준 미달의 사유로 아직 6명이 포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sup>68)</sup> 지역의 학계와 향토사가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근대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기록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일제강점기 인물의 공과를 정확히 밝히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굴곡진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럼 점에서 옥천 인물의 역사적 공과를 옥천에서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옥천의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옥천의 가치와 품격

67) 박결순, 2013,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향후 과제」, 『역사와 담론』 제68집, 호서사학회, 149~192쪽. 당시 발굴한 인물 중 권춘경·김운용·박종규·박종섭·이수천·정명옥은 2014년 이후 포상되었으나, 백인섭과 조기시는 제적부 등 서류 확인이 요구되어 아직 미포상이다.

68) 안소석(지전리, 징역 1년), 안대봉(지전리, 징역 10월), 최남석(예곡리, 태형 90)은 기록 불일치로, 박동희(백운리)·손일만(지전리)·신업이(지전리)는 태형 60처분을 받아 기준 미달로 포상 받지 못하고 있다.

을 높이는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논문접수 : 2016.10.20, 심사시작 : 2016.10.22, 심사완료 : 2016.10.30]

주제어 : 김규홍, 옥천, 동학혁명, 전좌한, 근대의 기억, 독립운동가

【참고문헌】

- 『韓國獨立運動之血史』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獨立新聞』  
『大韓每日申報』 『매일신보』  
『金百元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 2. 25).  
『康伊奉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10. 2. 4).  
『高漢周判決文』(대정 8년 형제786호, 공주지방법원, 1919. 12. 15).  
金復이 대한인국민회 미주총회에 보낸 편지(1911. 3. 7).  
朝憲警乙 第1330號, 1909. 10. 5.  
高警第1107號, 1923. 4. 9.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국사편찬위원회, 1985,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국사편찬위원회, 1981,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양식, 2001, 『새야 새야 파랑새야』, 충북학연구소.  
김양식, 2013,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과 활용 방안」, 『동학학보』 제17집, 동학학회.  
金正明編, 1967, 『朝鮮獨立運動』 第I卷, 原書房.  
김형목, 2013, 「한말 충북지역의 국권회복운동」, 『역사와 담론』 제68집, 호서사학회.  
김형목, 2002,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8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金昊珍, 2015, 「凡齋 金奎興의 생애와 독립군 양성 계획」,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 제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 박결순, 1999,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역사서 편찬」, 『大韓民國臨時政府 樹立80周年記念論文集(下)』, 국가보훈처.
- 박결순, 2010,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제15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박결순, 2013, 「3·1봉화만세운동과 趙東植」, 『중원문화연구』 제20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박결순, 2013,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향후 과제」, 『역사와 담론』 제68집, 호서사학회.
- 배경한, 2011, 「신해혁명과 한국」, 『歷史學報』 제212집, 역사학회.
- 손영홍, 2015, 「金復의 둔전병제 독립운동과 興華實業銀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신영우, 1993, 「東學農民戰爭期 報恩 일대와 북실戰鬪」, 『報恩 鍾谷 東學遺蹟』,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報恩郡.
- 오영섭, 2007, 『고종황제와 한말 의병』, 선인.
-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編, 2007, 『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將 宇都宮太郎日記(全3卷)』, 岩波書店.
- 임형택 외, 2005, 『역주 매천야록 하』, 문학과 지성사.
- 전순표, 2008, 「沃川·靑山 東學農民戰爭과 韓末義兵」, 『충북향토문화』 제20집,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전장한, 1994, 『행동하는 역사의 증인 - 독립투사 전좌한 의사 일대기-』, 문경출판사.
- 채길순, 2008, 「충청북도 증남부 지역 동학혁명사 연구」, 『충북학』 제10집, 충북학연구소.
- 충청북도 편,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陣中日誌』 I.